

HOME > 로컬+ > 대구경북 > 로컬이슈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농지은행사업에 195억 투입

배달형 기자 | 승인 2022.02.03 16:10 | 댓글 0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는 맞춤형 농지지원, 농지연금 등의 농지은행사업에 195억원을 투입해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3일 말했다.

농어촌공사는 2022년도 포항시, 울릉군 농업인들을 위해 19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해 155억원보다 40억원이 증액된 금액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공공임대용 매입농지(매입비축)사업 124억원,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47억원을 비롯해 농지연금사업 18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과원규모화사업, 농지규모화사업등에 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농지를 매입하여 장기임차를 지원하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매입비축)과 농업인의 영농규모의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이 있다.

또한, 농지연금사업은 농업인이 보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사업이며, 2022년부터는 그 가입연령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춰짐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장현문 지사장은 “올해부터 농지연금의 대상자의 가입연령이 완화된 만큼 농업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아일보]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

저작권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